

은은한 법향 퍼지는 꽃꽂이 해보실래요?

‘불교꽃꽂이 예작집’ 펴낸 정진희 씨



“가 품 사찰에 가 보면 불단 앞에 신도들이 공양한 꽃바구니와 꽃다발, 화분 등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을 좀 더 깨끗하고 정갈하게 장엄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불교정통꽃꽂이’ 강좌를 열고 있는 정진희(50·정진희꽃꽂이 중앙회장·사진) 씨가 2년간의 준비 끝에 <불교꽃꽂이 예작집>을 펴냈다. 책 제목을 ‘예작집(例作集)’이라고 지은 것은 다양한 꽃꽂이 작품과 만드는 순서를 사진으로 담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꾸몄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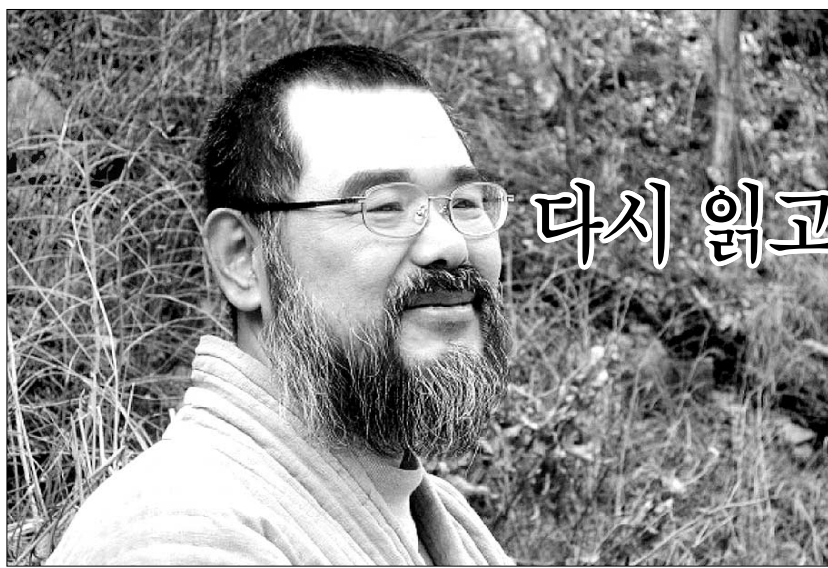
평범한 직장인에서 꽃꽂이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정 씨는 그동안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업의 꽃꽂이 강사로 활동해 왔다. 그런 그가 조계사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을 수료한 후 포교사로 활동하며 ‘꽃꽂이도 포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불교꽃꽂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헌화(獻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께 꽃을 공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반해, 꽃꽂이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점이 안타까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 회장은 책을 내면서 꽃꽂이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 우선 화려함보다는 단아하고 선(禪)적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인위적인 디자인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식물의 생장과정을 역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환경에 유해한 플로랄 폼(오아시스)은 사용하지 않았다.

“보통 꽃꽂이를 아주 어렵고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세 가지 꽃을 적절히 조합시켜 정성스레 꽂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교리공부나 수행이 더해진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자연스레 배어는 꽃꽂이를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 정 씨가 직접 디자인한 꽃꽂이 작품들(상·중·하)을, (아) 정(淨)을 주제로 나누어 실었다. 책 뒷편에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 과정 수료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을 담았다. 각 작품마다 꽃을 꽂는 순서와 실제 불단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이 밖에 영단(靈壇)이나 찾자리, 요사체 등에 어울리는 작품들도 볼 수 있다. 정진희 지음, 정진희 꽃꽂이중앙회, 3만5천원. 여수령 기자



해탈 스님은 “기존의 학설이나 연구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선불교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 문밖에 나서다
해탈 스님 지음
여시아문 | 1만4천원

“좋은 포교사는 설명하고 뛰어난 선승(禪僧)은 증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저자는 영감을 줍니다. 이 책이 한국 선불교 전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불교를 특징짓는 큰 요소 중 하나인 ‘선불교(禪佛敎)’,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돼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중국 선불교는 우리나라에도 전래돼 중국 이상으로 선풍을 진작시켰다. 중국 남종선을 수용한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잇달아 문을 연 9세기 초와 법안종과 임제종 등이 도입된 고려시대 이래 한국 불교사에서 ‘선불교’는 커다란 줄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해탈 스님이 펴낸 <선, 문밖에 나서다>는 이러한 ‘당연한’ 시각에 반론을 가한다. 기존의 학설이나 연구 방법론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선불교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일례로, 사교입선(舍交立禪)이라는 것도 교(敎)를 타락한 바탕 위에서 선(禪)의 호수로 뛰어 들어가 한다는 것이 해탈 스님의 시각이다.

서문 격인 별식(別食)에서 스님은 “이 책은 중국 선불교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어 온 한국 불교 전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의 주제는 한국 선불교의 우수성을 전제로 한 비판적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은 이를 ‘중

교입선(敎入禪)이라는 것도 교(敎)를 타락한 바탕 위에서 선(禪)의 호수로 뛰어 들어가 한다는 것이 해탈 스님의 시각이다.

“중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문서 포교에 앞장서 온 것이나 <금강경> 연구에 매진해 온 것에서도 언어의 숲을 지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스님의 지론을 엿볼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 ‘보리달마 이전의 선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 제자들에게 내린 가르침 등을 선어록을 통해 살펴본다. 2부 ‘선불교의 초기선사상’과 3부 ‘소주해능의 제자들의 선불교’에서는 보리달마에서 육조해능에 이르기까지 선불교의 초기 선사상과 이후 선택을 이어 온 선사상의 선문답과 가르침을 짚어보고 있다. 책에서는 선어록의 본문을 풀이한 후 ‘착어(着語)’를 두어 이해를 돕고 있다. 해설에 수많은 아포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을 인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선사상의 선어록과 저자의 지적 기반을 씨줄과 날줄로 엮음으로써 전체 맥락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인 ‘자의식 과잉’ 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책으로 엮는 과정에서 원고 600매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들의 성실한 독서와 비판뿐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중국 선불교 다시 읽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불교의 수많은 선사상이 남긴 기록인 <선종전서(禪宗全書)>는 무려 100권이나 됩니다. 만약 선사상이 이러한 어록문자들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계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어떻게 언어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불립문자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문서 포교에 앞장서 온 것이나 <금강경> 연구에 매진해 온 것에서도 언어의 숲을 지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스님의 지론을 엿볼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 ‘보리달마 이전의 선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 제자들에게 내린 가르침 등을 선어록을 통해 살펴본다. 2부 ‘선불교의 초기선사상’과 3부 ‘소주해능의 제자들의 선불교’에서는 보리달마에서 육조해능에 이르기까지 선불교의 초기 선사상과 이후 선택을 이어 온 선사상의 선문답과 가르침을 짚어보고 있다. 책에서는 선어록의 본문을 풀이한 후 ‘착어(着語)’를 두어 이해를 돕고 있다. 해설에 수많은 아포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을 인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선사상의 선어록과 저자의 지적 기반을 씨줄과 날줄로 엮음으로써 전체 맥락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인 ‘자의식 과잉’ 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책으로 엮는 과정에서 원고 600매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들의 성실한 독서와 비판뿐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불립문자는 중국불교가 인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편 삼은 가르침”

국 선불교 다시 읽고 그리고 되받아 쓰기’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불립문자(不立文字,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교외법전(敎外別傳, 경전 밖으로 따로 전해진다)’ 등 우리가 선불교의 핵심 명제라 생각하는 것들의 허구와 실상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불립문자론이란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사

천문학자가 풀어 쓴 우주와 인생

인생 이시우 글 | 이규경 그림 | 종이거울 | 1만원



“불길 따라 퍼져 나가는 내 영혼의 향기가/우주를 떠돌 때/이 향기 품고 태어날 자 누구인가?//인연으로 맺어진 그에게 고운 향기 남긴다면/한 세상 살림살이 후회할 것 없겠네.”(“우주와 나” 중)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가 별과 우주를 관측하며 바라본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풀어쓴 <인생>이 나왔다. 지난 2000년 선보인 시집 <풍막대기>의 내용 일부와 안성 도피안사에서 생활하며 쓴 글들을 함께 실었고 삽화가 이규경 씨가 동화같은 삽화를 곁들였다.

똑똑한 바보의 힘 ‘창조와 파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바보의 힘 이현정 지음 | 해토 | 1만원



불교방송 이현정 아나운서의 세 번째 책.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개성 있는 방식으로 참다운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똑똑한 바보’들의 성공 노하우를 담고 있다.

이 씨는 책에서 ‘똑똑한 바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창조’와 ‘파괴’라고 말한다. 자유로운 사고로 시야를 넓히고 깊이 뿌리박힌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파괴를 통해 진정한 것을 찾고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책

■ <사십구재란 무엇인가>(호림 스님 지음, 바보새, 7천7백원) = 호림 스님이 신도들을 상대로 사십구재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의 마지막 절차로 여기고 있는 사십구재의 의미를 비롯해 그 형식과 절차는 어떠한지를 쉽게 풀이하고 있다. 덧붙여 불교에서 보는 ‘죽음’의 의미, 사십구재와 천도재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볼 수 있다.

■ <출마를 위한 명상>(이상범 시집, 동학사, 8천원) = “비우고 세수도 염두 못낼 초록글씨/하늘 뜻 손짓하며 일렁이는 햇살무늬. 그 사람 그 전갈 거두어 미소로서 답한다”(‘초록글씨’ 卍) 시조시인 이상범 씨의 고회 시집. 시조를 현대시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 <침어불교>(침어불교재가연대, 7천원) = 2004년 3·4월호. 특집 ‘94종단개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종단개혁 이후의 변화와 성과·과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았다. ‘2004 총선과 불교’에서는 ‘2004 맑은 정치 불교연대’의 불자들의 후보자 선택기준과 행동지침 등을 실었다.

■ <젊은 대지를 위하여>(연기영 지음, 화남, 9천원) = <지상의 순가락 하나>로 널리 알려진 작가 연기영의 세기말 시집이다. 38편의 글이 실린 이번 산문집에는 소설로써 미처 다하지 못한 작가 내면의 은밀한 자기고백을 담고 있다. 글은 대부분 1980년대 초반에 씌어진 것들이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문의: (02)737-0695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2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동승동사
3	가장 행복한 공부	화희 스님	시공사
4	탁발한 스님의 금강경	탁발한	장경각
5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6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연일해우소장
8	아! 붓다	탁발한	반디미디어
9	불교수행법 강의	남회근	세이움책방(세이움)
10	대승입능가경	동국대학교출판부	동국대학교출판부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달려 있다. 역자지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선문염송 매 책마다 도음말과 송으로 취모집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의가 숨어있는 공안창구의 깊이를 엿볼 수 있도록 했다.

www.zenparadise.com
02-597-2460 도서출판

불교꽃꽂이 예작집

* 저자: 정진희 (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강사)
* 내용: ● 상단꽃꽂이 ● 예작편(例作)
● 영단꽃꽂이 ● 禪(zen) 꽃꽂이
● 다화(茶化)

이 책은 누구든지 보고 따라하기 쉽게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011-730-6845
011-280-0537
■ 계좌번호: 우리은행 136-07-038816
예금주: 정경란

승복 법복 인네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 광목(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역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한국산 100%(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영동로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이해 산이 무너지고 대지가 무너 이는 누구의 허물입니다.
인간만의 편의를 위해 사라져 간 생명들의 원성 그치지 않는데 또다시 못생명의 터전인 산을 허물고 물질을 지르려 합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진리를 실천부처님 전에 향 사르고 간절히 었드려 참회하고 발원하옵나니, 낮은 거리에서 흥리는 이 참회를 받아 주시옵고 이 눈물이 정화의 샘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위치에 처해 있는 천성산에 화연의 바람 불게 하시고 불길한 구름은 바람으로 흩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한 걸음이 무례하게 역사했던 이 땅 위에 화합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소서.

인간과 자연의 일체, 초록의 공명을 예찬한다

지을, 숲에서 나오다

지을스님 지음 | 변형국권 | 값 8,500원

전국 주요 서점과
시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901-9441